

2023년 대비 감정평가사 경제학 확인학습(6주)

월비스 김영식 교수제공

(5주차 : 제68형 ~ 제 79형) 총 15문제 난이도 ★ 또는 ★★

01.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은?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T 는 조세, I 는 투자, r 은 실질 이자율, G 는 정부지출이다.)

$$C = 100 + 0.5(Y - T)$$

$$I = 100 - 25r$$

$$G = T = 100$$

- | | |
|--------------------|--------------------|
| ① $r = 8 - 0.016Y$ | ② $r = 10 - 0.02Y$ |
| ③ $r = 10 - 0.03Y$ | ④ $r = 12 - 0.04Y$ |
| ⑤ $r = 12 - 0.05Y$ | |

02.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② 우하향하는 IS곡선의 왼쪽에서는 생산물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③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평선이다.
- ④ 화폐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평선이다.
-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03. 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 ②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 ③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 ④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 ⑤ 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04. 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 ②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③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 ⑤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05.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IS 곡선이 수직선이다.
- ㄴ. LM 곡선이 수평선이다.
- ㄷ.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ㄹ.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나타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07.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 ②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 ③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 ④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 ⑤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08.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 정책으로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ㄴ.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제품의 순수출이 감소한다.
- ㄷ.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자산가치와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 ㄹ.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통화량이 늘어나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 감소	ㄴ. 국내 이자율 하락
ㄷ.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	ㄹ. 국내 소득세 인상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단기 또는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적자본 증가 ② 노동인구 증가
 ③ 기술지식 진보 ④ 예상 물가수준 하락
 ⑤ 자연실업률 상승

11. 폐쇄 경제 IS-LM과 AD-AS의 동시 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긴축 재정정책
 ② 팽창 통화정책
 ③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④ 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⑤ 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1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분석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③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④ 통화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⑤ 재정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13.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장기적으로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 ②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③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 ⑤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14. 각 경제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학파는 구축효과, 화폐의 중립성을 들어 경제 안정화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②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는 IS곡선이 가파르고, LM곡선은 완만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③ 통화주의자(Monetarist)는 신화폐수량설, 자연실업률가설을 들어 재량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을 주장한다.
- ④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는 예상치 못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일시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⑤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는 임금과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경제안정화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15.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ㄴ. 노동자의 근무태만이 늘어난다.
- ㄷ.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주차 : 제68형 ~ 제 79형) 총 15문제 (해설과 정답)

01. 출제년도 2013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②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68형 IS-LM 모형과 IS곡선)

해설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식은 $Y = C + I^D + G$ 이므로

$$Y = C + I^D + G = 100 + 0.5(Y - 100) + 100 - 25r + 100$$

위식을 정리하면 $r = 10 - 0.02Y$

02. 출제년도 2013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③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68형 LM곡선과 IS-LM균형)

해설

- ① (O)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② (O) 우하향하는 IS곡선의 왼쪽에서는 생산물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 ③ (X)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b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가 0이므로 IS곡선은 수직선이다.
- ④ (O) 화폐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평선이다.
- ⑤ (O)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참고 < IS곡선의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방향 >

요인	증가여부	IS곡선 이동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	증가	우측이동
조세(T), 수입(M), 저축(S)	증가	좌측이동

< IS곡선 기울기의 결정요인 >

IS곡선의 기울기는 $-\frac{1-c(1-t)+m}{b}$ 또는 $-\frac{1-c}{b}$ 이므로

요인	크기	기울기(탄력도)	완급
b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c (한계소비성향) s (한계저축성향)= $1-c$ t (세율) m (한계수입성향)	클수록	작아진다(탄력적) 커진다(비탄력적)	IS곡선이 완만 IS곡선이 급경사

< LM곡선 기울기의 결정요인 >

LM곡선의 기울기가 $\frac{k}{h}$ 이므로

요인	크기	기울기(탄력도)	완급
h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클수록	작아진다(탄력적)	LM곡선이 완만
k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클수록	커진다(비탄력적)	LM곡선이 급경사

< LM곡선의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방향 >

요인	LM곡선 이동
통화량(M_0)증가	우측(하방)이동
화폐수요 증가(소득 불변) 물가상승	좌측(상방)이동

03. 출제년도 2018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⑤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1형 재정정책의 효과)

해설

- ① (X) 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여야 투자가 감소하므로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② (X)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IS곡선이 급경사이므로 구축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③ (X)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가 크므로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④ (X)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승수효과가 작으므로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⑤ (O)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승수효과에서 구축효과를 뺀 만큼 발생하므로

정액세만의 승수는 $\frac{dY_E}{dG} = \frac{1}{1-c}$, 비례세의 승수는 $\frac{dY_E}{dG} = \frac{1}{1-c(1-t)}$ 이므로 정액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

참고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驅逐效果)>

1) 구축효과의 개념

재정적자 또는 확대재정정책의 결과가 이자율을 상승시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효과라 한다.

이러한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이 정부지출승수 만큼 증가하지 못한다.

2) 구축효과의 크기

- ㉠ IS곡선이 완만(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다)할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 LM곡선이 급경사(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작다)일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04. 출제년도 2020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⑤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1형 재정정책의 효과)

해설

- ① (O)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② (O)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③ (O)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④ (O)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⑤ (X)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참고 < 리카르도 등가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等價定理]>

(1) 리카르도 등가정리(공채중립성정리)의 개념

- 1) 정부지출재원의 조달방식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든 민간차입인 국공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든 경제의 실질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2) 새고전학파(배로: R.Barro)의 견해로 국공채는 정부의 부채이므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채는 단지 조세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의 조세를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면 국공채발행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시킨다.

(3)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 1) 경제활동인구(조세부담을 지는 경제주체)의 증가율이 0%이어야 한다.
→ 국채발행으로 감세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이면 미래조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소비를 증가시킨다.
- 2)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근시안적 소비행태를 보인다.
- 3) 정부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고 항상 균형재정을 준수한다.
→ 미래의 국채상환을 다시 국채발행으로 대신한다면(적자재정) 민간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 4)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완전자본시장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 유동성제약(차입제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05. 출제년도 2013

출제빈도 ★★★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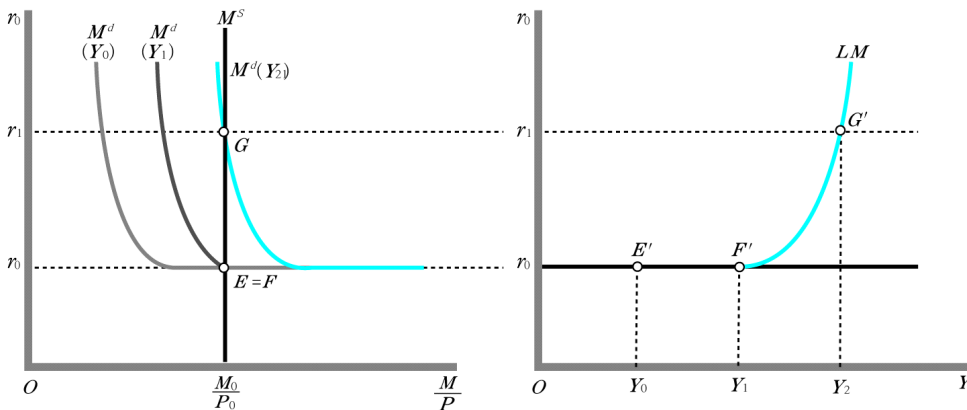
정답 ②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2형 금융정책의 효과)

해설

- ㄱ. (X) IS 곡선과는 무관하다.
- ㄴ. (O) LM 곡선이 수평선이다.
- ㄷ. (X) LM곡선은 수평이면 IS-LM분석에 의하면 재정정책은 매우효과적이지만 금융정책은 효과가 전혀없다.
- ㄹ. (O)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나타난다.

참고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서의 LM곡선



☞ 유동성함정인 구간에서는 h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의 값이 ∞ 인 경우이므로

- ㉠ 최초의 균형점 E 에서 국민소득이 Y_0 , 이자율이 r_0
- ㉡ 국민소득이 Y_1 으로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화폐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균형점 E 는 변하지 않으므로 이자율도 r_0 로 일정하여 LM곡선은 수평으로 도출된다.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1형 재정정책의 효과, 제72형 금융정책의 효과)

해설

- ㄱ. (X)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ㄴ. (O)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이 완만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ㄷ. (O)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IS곡선이 완만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참고

1. IS-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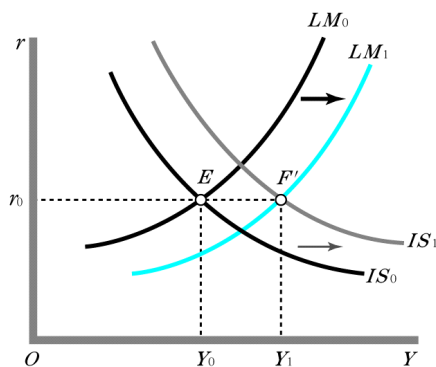
- 1) LM곡선이 완만할 수 록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클수록) → 케인즈학파의 주장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다.
 2) IS곡선이 급경사 일수록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작을수록) → 케인즈학파의 주장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다.

2. IS-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금융정책의 효과

- 1) LM곡선이 급경사일수록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 통화주의학과 주장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다.
 2)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클수록) → 통화주의학과 주장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효과 크다.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2형 금융정책의 효과)

해설



확대금융정책과 확대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정책이다. 한편 확장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 이동 시키므로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확장금융정책은 LM곡선을 우측이동 시키므로 국민소득은 증가시키고 이자율은 하락하므로 국민소득은 증가하나, 이자율의 변화 방향은 알 수 없다.

08. 출제년도 2018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②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3형 총수요(AD)곡선)

해설

- ㄱ. (O)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 정책으로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IS곡선 우측이동 → AD 곡선 우측이동
 ㄴ. (X)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제품의 순수출이 감소 → IS곡선 좌측이동 → AD 곡선 좌측이동
 ㄷ. (O)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자산가치와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 IS곡선 우측이동 → AD 곡선 우측이동
 ㄹ. (X)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통화량이 늘어나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AD곡선상의 이동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

요인	변수	IS곡선 LM곡선 이동	AD곡선 이동
IS곡선의 이동요인	소비(C_0), 투자(I_0), 정부지출(G_0), 수출(X_0) 등이 증가		우측이동
	조세(T_0), 수입(M_0), 저축(S)이 증가		좌측이동
LM곡선의 이동요인	통화량(M_0)증가		우측이동
	화폐수요 증가(소득 불변)		좌측이동
	물가상승	좌측이동	AD곡선상의 이동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LM곡선을 좌측이동시키나 AD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 AD곡선상의 좌상방으로 이동된다.

09. 출제년도 2019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③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3형 총수요(AD)곡선)

해설

- ㄱ. (X) 정부지출 감소 → IS곡선 좌측이동 → AD 곡선 좌측이동
 ㄴ. (O) 국내 이자율 하락 → 투자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AD 곡선 우측이동
 ㄷ. (O)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 → 수출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AD 곡선 우측이동
 ㄹ. (X) 국내 소득세 인상 → 조세증가 → IS곡선 좌측이동 → AD 곡선 좌측이동

10. 출제년도 2015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⑤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4형 총공급(AS)곡선)

해설

- ① (O) 물적자본 증가 → 생산가능곡선 상방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② (O) 노동인구 증가 → 생산가능곡선 상방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③ (O) 기술지식 진보 → 생산가능곡선 상방이동 → AS곡선이 우측 이동
 ④ (O) 예상 물가수준 하락 → AS곡선이 우측 이동
 ⑤ (X)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면 완전고용산출량이 감소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참 고 < 총공급곡선의 이동 >

(1) 노동공급증가의 영향

인구증가, 노동의욕 상승, 근로소득세가 인하 → 노동공급이 증가 →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 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

(2) 노동수요증가의 영향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이 하락, 예상 물가수준 하락, 법인세 인하 등 → 노동수요 증가 → 노동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3) 생산함수의 이동영향

기술진보나 자본이 증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노동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11. 출제년도 2022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③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5형 총수요관리정책)

해설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하락하여야 하므로 긴축 재정정책이나 팽창 통화정책이다.
물가를 원래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긴축정책과 팽창정책의 조합이므로 답은 ③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12. 출제년도 2018

출제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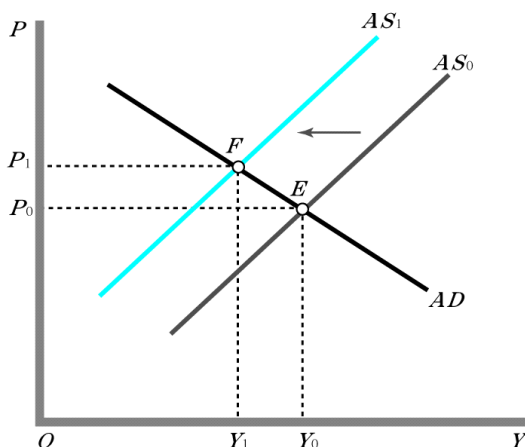
난이도 ★

정답 ①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5형 총수요관리정책)

해설

- ① (X) 확장적 통화정책은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시킨다.
- ② (O) AS곡선 좌상방이동($AS_0 \rightarrow AS_1$) → 물가상승($P_0 \rightarrow P_1$: 인플레이션, 산출량감소($Y_0 \rightarrow Y_1$)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③ (O)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④ (O) 축소통화정책은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감소시킨다.
- ⑤ (O) 확장적 재정정책은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시킨다.



- ➡ 최초균형점 E점 : (Y_0, P_0)
- 임금인상, 이윤인상, 공급충격
- AS곡선 좌상방이동($AS_0 \rightarrow AS_1$)
- 새로운 균형점 F점
- 물가상승($P_0 \rightarrow P_1$: 인플레이션)
- 산출량감소($Y_0 \rightarrow Y_1$)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13. 출제년도 2021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②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6형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비교)

해설

- ① (X) 장기적으로 항상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O) 확대금융정책에 의한 통화량증가는 실질변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X) 확대금융정책에 의한 통화량증가는 실질변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④ (X) 화폐의 중립성에 의해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있다.
 ⑤ (X)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실질변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참고 < 고전적 이분성[classical dichotomy, 古典的二分性] (화폐의 중립성) >

경제의 모든 실질변수(실질국민 소득, 실질임금, 고용량, 실질이자율 등)는 모두 통화량과 관계없이 실물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 화폐의 베일관(veil of money concept)

- 1) 확대금융정책에 의한 통화량증가는 실질변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2) 통화량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므로 명목국민소득은 증가시키지만 실물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베일(veil)에 불과하다.

14. 출제년도 2015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③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6형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비교, 제 77형 새고전학파의 주요이론, 제 78형 새케인즈학파 주요이론)

해설

- ① (O) 고전학파는 구축효과, 화폐의 중립성을 들어 AS곡선이 수직이므로 경제 안정화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O)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는 IS곡선이 가파르고, LM곡선은 완만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③ (X) 통화주의자(Monetarist)는 신화폐수량설, 자연실업률가설을 들어 준칙주의 방식의 경제안정화정책을 주장한다.
 ④ (O)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는 예상치 못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일시적으로 AS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⑤ (O)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는 임금과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AS곡선이 우상향하므로 경제안정화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정책운영방식의 차이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효과적인 정책	· 재정정책 > 금융정책	· 금융정책
운영방식	재량적 방식 (미조정: fine-tuning) ·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정책을 사용하는 방식	준칙주의 방식 (k% rule) · 주어진 규칙을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식
주장근거	· 급작스런 투자변동에 적응 · 화폐유통속도의 변화에 의한 화폐부문의 교란요인 · 준칙주의를 지키는 능력의 불신	· 정책의 시차문제 · 재량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을 유발 · 정책당국의 능력과 의도가 의심 ·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줄여 시장기구의 자율성 발휘

15. 출제년도 2017

출제빈도 ★★

난이도 ★★

정답 ③

출제영역 9. 총수요·총공급이론 (제78형 **새케인즈학과 주요이론**)

해설

- ㄱ. (O)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ㄴ. (X)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에서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
ㄷ. (O) 노동이직모형에서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참고 <효율성임금이론(실질임금 경직성)>

효율성임금이란 실질임금 1단위당 근로의욕이 최대가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임금이 지속되는 미시적 근거>

- 1) 노동이직모형 : 높은 실질임금이 이직률을 낮춘다.
- 2)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3) 역선택 모형 :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효율성임금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4) 영양상태 향상모형 :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